

# 사슴의 건강관리

이 자료는 철원군 농촌지도소에서 정리한 것으로 '99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 실린 내용이다.

## 1. 사슴의 건강관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처치하는 것은, 사슴사육에 있어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육자가 꼭 해야 할 기초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가. 방역(사슴장 및 시설물 소독)

봄철이 되면 겨울 동안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없었던 사육장내는 오물이 축적되고 지저분한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사료별 찌꺼기나 배변물 등 오물은 한곳에 모아 불을 질러 태워버리도록 하며 가능하면 새로운 흙으로 갈아주고 생석회를 뿌리거나 소독제를 분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름철이 되면 사슴장이 질척질척하고 배수가 잘 안되는 사육장은 배수가 잘 되도록 미리 개수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번식기때 사육장내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면 새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곰팡이성 피부병 등이 발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소독을 실시하고 사육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 나. 기생충 구충실시

기생충 감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기생충의 감염은 2차적인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충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장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영양불량, 성장불량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에 2~3회는 반드시 내부기생충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녹용 채취시 녹혈도 채취하여 직접 복용하는 관계로 수컷의 경우는 녹용 절각기 전에 반드시 내부 기생충 구충제를 투여토록 하여 양질의 생산물을 생산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부기생충(진드기, 파리, 모기등)도 구제해 주도록 사슴장 주변이나 주위 숲에는 살충제를 살포하여 외부기생충들이 사슴의 피를 빨아먹어 빈혈을 초래하거나 질병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최근 LG화학에서 개발한 「LG유백틴」이 사슴 내외부 기생충 구충제로 뛰어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다. 사양관리의 점검

아직까지 사슴에게는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므로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양관리의 잘못으로 집단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패한 사료와 곰팡이가 핀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소화기성 질병의 유발이 많으므로 사양관리 측면에서 예방점검이 필요하다.

#### 라. 시설관리의 점검

사슴 사육시설인 철망이나 내부시설물이 잘못 설치되거나 노후하여 손상을 초래하거나 파상충 등에 감염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 그리고 더러운 사료통, 급수시설 등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사슴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요령 (질병의 예방, 치료)

- 사슴의 활동이 활발하며 경쾌한가?
- 사료의 채식상태가 활발하며, 무기력하여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사료를 먹지 않고 혼자 있는가?
- 사슴의 배변상태가 정상적으로 윤기가 흐르며 동글동글한가? 아니면 설사를 하거나 변이 뭉쳐 나올 때 흰 점액이나 혈액, 기생충이 섞여 나오지 않는가?
- 사슴의 피모가 거칠거나 탈모현상은 없는가?
- 사슴의 등이 굽거나 마르지 않았는가?
- 사슴의 배가 너무 부르거나 자주 앓고 활동을 기피하지 않는가?
- 침을 흘리거나 침울하며 자주 기지개를 펴고, 뒷다리를 찢히지는 않는가?
- 콧등이 마르거나 호흡이 빠르고 호흡음이 거칠지는 않는가?
- 기침을 하거나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가?
- 반추(되새김)를 하지 않거나 구토물은 없는가?
- 다리를 절거나 부어올라 화농물질은 없는가?
- 소변의 색깔은 정상적이며 자주 배뇨를 하지 않는가?

· 외음부가 붓거나 화농성 물질이 흐르지는 않는가?

· 간혹 경련(떨음)을 일으키거나 동통을 나타내지는 않는가?

· 눈동자가 돌아가거나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않는가?

· 눈동자에 백태가 끼거나 사물을 잘 보는가?

## 2. 사슴의 질병 발생 원인

### 가. 사양관리의 잘못으로 발병되는 질병

- 급성 식체
- 급성 고장증
- 급·만성장염
- 탄수화물 중독증
- 장독혈증
- 대사장애 (영양장애)
- 피부병 (탈모증)
- 불임증 (난산등 산과질환 포함)
- 체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기 감염
- 곰팡이성 호흡기 질병

### 나. 시설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질병

- 새끼의 제대감염증 (배꼽감염)
- 새끼의 설사병
- 새끼의 급성감염
- 어미의 요로감염증
- 부제병 (발통병)
- 곰팡이성 피부염
- 파상풍 및 손상(상처, 타박)
- 소화기 장애
- 난산, 불임증등

## 3. 현재 사슴에서 발병하고 있는 질병

### 가. 호흡기계 질병

#### 1) 급성폐렴

새끼사슴이나 허약한 사슴에서 간혹 발견되며 특히 일교차가 심한 4~5월이나 9~10월 경에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된다. 증상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운동은 기피

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 진찰을 하면 고열(41℃ 이상)을 나타내고 호흡음이 거칠며 심음도 불규칙하다.

조기 발견하여 보온시켜 주며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파제나 항생제를 주사하고 영양수액의 공급 및 해열제 등 대증요법을 실시하면 회복이 빠르다.

## 2) 기관지 폐렴

간혹 성숙에서도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환절기에 잘 나타나고 때로 곰팡이가 핀 건초를 공급하였을 때 흡입됨으로 인하여 곰팡이성 폐렴이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간헐적으로 기침을 하며 차츰 마르고 털이 거칠어지며 활동성이나 식욕이 떨어지며 호흡도 거칠어진다.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주사하고 영양제 등을 투여하면 회복이 빠르다.

## 3) 폐농양

원인은 흉부의 타박이나 늑골 골절 등 손상이 파급되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에 의하여 생긴 출혈이나 조직액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화농됨으로써 폐엽에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특히 수컷의 경우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뽑을 절각할 때 흉부에 심한 충격을 주어 발생되기도 하며 또한 발정기에 서로 싸우다가 받치는 등 심한 타박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외 창상성 제2위염의 일환으로 예리한 절편이 2위를 뚫고 흉강내에 떨어져 폐엽에 손상을 주고 감염을 일으켜 화농성 물질이 생기는 경우이다.

증상은 활동상태가 저조하고 침울하며 운동을 시키면 기침을 심하게 하고 동통을 동반한다. 차츰 식욕이 떨어져 마르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심하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 치료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여야만 치유가 가능하며 만성적으로 이환되면 농이 폐 전체로 확산되어 치료불능 상태가 된다.

치료약은 항생제, 소염제 등을 사용한다.

## 4) 진균성호흡기 감염

원인은 곰팡이균이 호흡기로 흡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여러 마리의 사슴이 집단적으로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이며 추운 혹한의 계절이 아닌 봄철이나 여름철에 나타난다.

간혹 겨울동안 저장하였던 건초가 봄이 되어 곰팡이가 번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름철에도 습기가 많은 우기에 사료통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관리하여 곰팡이 가루가 사료채식시 호흡기로 흡입됨으로서 발생한다.

우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빨리 사료나 사료통등 문제발생 소지를 개선해 주어야 하며 2차적 호흡기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 등을 투여하면 완화된다.

## 나. 소화기계 질병

### 1) 급성식체

불규칙한 사료의 공급으로 과식을 초래하거나 채식후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병된다. 특히 사료의 변경을 갑자기 실시하거나 과량 급여했을 때 발생되며, 혹한기에 사료를 먹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므로 발생되기도 한다.

증상은 되새김을 하지 않고 운동을 기피하며 침을 흘리거나, 뒷다리를 기지개를 퍼듯 위로 젖히는 자세를 자주 취한다. 가벼운 운동을 시키고 위기능 항진제를 주사하거나 소화효소제 등을 투여한다.

### 2) 고창증

부패한 사료나 두과식물의 과식, 항생물질의 남용등이 원인이 되며 특히 여름철에 직사광선에 쬐인 풀을 즉시 다량 급여하였을 때 위내에서 발효가스가 발생되어 유발되기도 한다.

증상은 복부가 점점 팽대되므로 복압으로 인하여 심장에 압박을 주게 되며 순환기 및 호흡기에 장애를 초래한다. 호흡이 거칠며 운동을 피하고 심하면 주저앉아 버린다.

치료로는 증세를 빨리 발견하여 가스제거제

를 투여하거나 복부를 천자(뚫음)하여 가스를 배출시키고 소화촉진이나 위기능 항진제를 투여한다. 포말성일 때는 난치성으로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 3) 급·만성장염

사양관리의 잘못으로 흔히 발병되며 특히 농후사료를 과량 급여할 때 소화불량 증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외 내부기생충 감염이나 오염, 또는 부패된 사료를 먹었을 때 발생되기도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증상은 설사를 하거나 변이 뭉쳐서 나오고 심하면 탈수현상과 식욕의 급격한 저하로 폐사에 이르기까지 한다. 만성으로 이환되면 변이 뭉쳐서 나오거나 흰점액과 혈액이 묻어 나온다. 만성장염의 경우는 영양흡수가 잘 안되어 피모가 거칠며 식욕저하로 점차 마르게 된다.

치료로는 정장제, 지사제 등을 주사하고 영양수액의 공급을 겸하면 치유가 빠르다. 우선 사료의 급여량을 조절하고 질 좋은 건초를 먹이도록 한다. 물에는 약간의 소금을 타서 급수토록 하고 수액공급이 어려울 때는 「에렉크로라이트」분말을 물에 타서 공급하면 효과적이다.

### 4) 탄수화물 과식증

옥수수, 밀, 보리 등과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곡물을 다량 급여하므로써 발생되므로 일명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도 한다. 간혹 배합사료외에 공급하는 고구마, 감자, 도토리 등이 과식의 원인이 된다.

증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식체증상과 같이 뒷발을 뒤로 젖히고 기지개를 펴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하며 사슴의 행동이 둔화된다. 또한 제1위가 충만되고 복통을 나타내며 반추작용이 없어지므로 식욕도 떨어진다.

제1위를 청진해 보면 수축음을 들을수 있다. 심장의 박동은 증가하고 호흡음이 빠르다. 간혹 연변이나 하리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곡물입자를 배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치료가 매우 힘들며 위수술에 의해 내용물을 제거해 주고 위내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등 예후가 불량하므로 예방에 주력해

야 한다.

### 5) 이물성 위염

사료에 섞인 철편이나 못, 비닐조각, 나일론 끈 등 이물을 먹음으로써 위저부에 이물 덩어리가 소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리한 철편으로 인하여 위점막을 자극받아 창상성 제2위염을 병발케 하기도 하고 이물 덩어리가 위유문부를 막아 버림으로 해서 갑자기 폐사하기도 한다.

증상을 보면 식욕이 감퇴되고 피모가 거칠어지며 허리가 활처럼 굽어 운동을 기피한다. 또한 침울하며 간헐적으로 연변을 발하기도 한다. 수술 이외에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사육장내에 못, 비닐 등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6) 자록하리

생후 1개월 이내의 포유중인 새끼사슴에서 간혹 발병되며 과식, 급작스런 기온 변화, 축사내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허약체질, 비타민 그룹의 결핍 등이 원인이 된다.

증상을 보면 젖이 소화되지 못하여 하얀 빛의 설사를 하거나 황녹색 하리변을 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탈수가 심해지며 힘이 떨어져 활동이 저조하고 한곳에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허탈상태에 빠져 폐사하기도 하므로 빨리 발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치료로는 우선 보온을 시켜주고 수액을 주사하여 탈수를 막아 주도록하고 항생제나 설파제, 정장제, 소화제 등을 투여하면 회복이 빠르다.

### 7) 장독혈증

사료를 갑자기 변경하거나 특히 배합사료외에 옥수수, 밀 등과 같은 곡물을 다량 급여하였을 때는 위내의 균형이 깨어져서 산이 많이 형성되는데 이 산을 좋아하는 나쁜 균의 증식이 갑자기 증가하여 독소를 발한다.

조직이나 장기가 부식되어 버리는 질병으로

간혹 봄철에 새로 나온 풀을 성급히 뿌리째 뽑아 급여하였을 때 흡수에 잠재해 있던 혐기성균이 체내에 증식함으로써 발병되기도 한다.

증상을 보면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침을 하며 설사를 동반한다. 때론 혈변을 발하기도 하며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경련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단 발병되어 진행중이면 치료가 불가능해 지므로 예방에 주력해야 하는데, 사료의 급여량을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위추출물, 효모균 등을 투여하고 항생제 등을 주사한다.

#### 다. 순환기계 질병

##### 1) 내출혈

주로 동종간 투쟁으로 인한 타박이나, 불안하여 뛰다가 철망에 부딪쳐 내장기내에 출혈이나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장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은 모세혈관의 출혈인 경우는 서서히 흡수됨으로써 회복될 수 있으나 심한 경우는 순환기 장애를 일으켜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응급치료로는 지혈제, 혈관강화제, 조직세포 부활제,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출혈이 빨리 흡수되도록 고농도의 수액을 주사한다.

##### 2) 창상성 심낭염

창상성 제2위염의 후속적 병발현상으로 예리한 철편이 움막을 뚫고 심장부위에 손상을 주어 발생되며 증상을 보면 잘 움직이지 않고서 있으며 운동을 시키면 동통을 일으킨다.

특히 언덕에서 아래로 걷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고 때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기도 한다. 청진을 해보면 심음이 불규칙하며 물 흐르는 듯한 심음을 청취할 수 있다.

치료가 불가능하며 확산되면 도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대사성 질병

##### 1) 광물질 대사장애

사료내에 필요로 하는 광물질이 부족했을 때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생

체내에 구리가 부족하게 되면 허리가 굽고 후구를 잘쓰지 못하여 걷지를 못하고 심지어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셀레늄 부족현상도 역시 근육의 정상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여 후구를 잘 쓰지 못하고 기립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광물질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사장애는 주로 성장기에 있는 육성록에서 많이 발생되며 대사장애 정도에 따라 증상에도 많은 차이는 있다. 성장발육이 정지되거나 성록이 되어도 번식장애를 초래해 부제병에 잘 걸리는 등 여러가지 2차적 병발을 가져온다.

##### 2) 영양대사장애

사료의 질이 떨어지고 혹한이 계속되는 겨울철에 영양축적이 안된 어린사슴이나 노쇠한 사슴에서 흔히 발병되는데 환절기인 봄철이 되면 현저하게 나타난다.

만성장염의 일환으로 영양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되기도 하며 기생충감염으로 인한 영양손실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질이 떨어지는 사료를 오랫동안 공급하였을 때 영양소의 결핍으로 체내 대사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피모가 거칠거나 탈모현상이 있으며 마르고 허리가 굽으며 식욕도 왕성하지 못하다.

이러한 사슴은 털갈이도 늦게하고 낙각현상도 늦어지며 녹용상태도 왜소해 지거나 기형각을 형성한다. 암컷의 경우는 불임증상을 초래하거나 조산,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방대책으로는 내부기생충 구충을 반드시 실시하고 계절에 따라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양질의 사료를 급여토록 한다.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슴은 빨리 격리하여 특별 사양관리를 하고 영양대사 촉진제 등을 투여하여 빨리 회복시키도록 한다.

#### 마. 피부질환

##### 1) 곰팡이성 피부염

곰팡이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따뜻한 봄철부터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병되므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슴장이 청결치 못한 오염된 곳에서 사슴이 앉아 있거나 몸을 비비므로 인하여 악한 피부에 곰팡이가 감염되어 피부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탈모현상으로 피부에 털이 빠지고 소양증(가려움증)을 나타내 긁기 때문에 더욱 번져 나간다.

노출된 피부에 햇빛을 받게 되면 피부는 검게 변하며 피부기능을 잃어 피부가 비후해지고 감염된 부위는 검고 우툴두툴하게 변한다.

주로 안면, 귀, 목, 사지기시부 등 연약한 피부조직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전신적으로 퍼지면 보기가 흉할 뿐 아니라 치료도 어려워진다.

치료 및 예방대책으로는 피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곰팡이 치료제인 「흰지사이달(곰팡이를 죽이는 약)」약품을 물에 타서 스폰지로 환부를 문질러 주거나 「스프레이」를 해주어 곰팡이의 증식을 막도록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사육장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청결히 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배수가 잘되는 흙으로 개토를 해서 곰팡이 번식이 안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탈모된 털이 자라 나오고 피부가 재생이 잘 되도록 영양대사 촉진제를 사료에 혼합투여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 2) 안면습진

이 병도 곰팡이에 의해 발병되는데 곰팡이가 핀 사료를 급여하였을 때 곰팡이 독소가 간장에 심한 손상과 황달을 초래하여 광선에 과민한 안면에 습진성 피부병이 발병되는 것을 일컫는다. 장마철에 곰팡이가 핀 사료를 먹게 되는 경우나 겨울동안 저장했던 건초가 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곰팡이가 발생하여 사료급여시 뜻하지 않게 발생하므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사양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방법이다.

## 3) 파라폭스바이러스

전염성 농창으로 일컬어지며 뉴질랜드의 레드디어에서 발생되었다는 임상보고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발견된다. 주로 분만된

지 얼마 안된 어린새끼에서 발병되는데 증상은 콧등과 얼굴, 귀 등이 부어 오른다. 괴양성 피부병 증상을 보이며 피부조직에 딱지가 생기고 우툴두툴한 피부염 증상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치료약은 없으나 초기에 발견하여 「코티코스테로이드」제제와 항생제 등을 주사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증상이 호전된다.

## 4) 영양대사장애로 인한 탈모

영양대사장애의 한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만성장염이나 기생충감염, 부패사료의 채식이나 중독증, 미량원소의 결핍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증상을 보면 털이 부분적으로 빠지거나 부스러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칼로 베어 놓은 것과 같이 털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부가 벌겍게 들어날 정도로 탈모현상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털이 재생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예방치료로는 사료의 질을 높이고 특히 고단백질의 사료를 급여토록 하며 건초도 질 좋은 것을 급여토록하여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된 사료첨가제를 투여토록하고 소화흡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효모제를 함께 투여하면 효과적이다.

<다음호에 계속>

### ● 똑바로 알자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 녹용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녹용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 또는 국내산과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원산지표시 대상 녹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녹용의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국립농산물검사소 본소(0343-446-6060) 및 당해 지역의 6060번 전화나 협회(02-969-6600)로 신고 바랍니다.